

2004년 APEC 성과와 의의



金宗壘
외교통상부 APEC 담당대사
2005년 APEC SOM 의장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12차 APEC 정상회의가 지난 2004년 11월 21일 폐막됨으로써 2004년 APEC 일정이 사실상 종결되었다. 2004년도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상대인 칠레에서 개최되었다는 상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을 맡게 되는 2005년도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의미가 있는 중요한 회의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개최된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nformal SOM)부터 연중 각급 APEC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2004년도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과 함께 2005년도 의장국 수임에 대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APEC의 의의

APEC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대국을 포함하는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체인 한편, 세계경제 차원에서도 전 세계 GDP의 약 57% 및 교역량의 46%가 APEC 회원국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APEC 회원국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약 44.8%를 차지하는 등 명실공히 지구경제의 절반을 포괄하는 거대한 경제협력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개 APEC 회원국과의 교역량이 총교역량의 약 70%에 달하고 있는바,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약 70%임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연중 생산해내는 부

가가치의 가치 절반이 APEC 회원국들과의 무역으로 창출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APEC은 우리에게 거대하고 안정된 시장을 제공해주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보고르목표로 대표되는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노력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역내 시장질서를 유지 발전시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무역선진국으로의 도약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2004 APEC의 주요 성과

보통의 국제회의와는 달리 APEC 정상회의는 형식과 절차를 지양하고 정상간에 격의 없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석자 없이 진행되는 독특한 형식을 취한다.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21개국 정상 또는 정상대리가 참석,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결과 “하나의 공동체,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하에 무역자유화 등 경제문제와 지난 9.11테러공격과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발병 이후 부각되기 시작한 역내 인간안보위협에 대한 공동대처방안 모색 등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각 분야별 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차관보급 회의로서 APEC의 전반을 조정), 각 위원회, 실무회의, 산하회의 등 APEC내 각급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원만히 추진하였다.

우선 무역투자자유화 의제에서는 2005년도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6차 WTO 각료회의까지 도하개발 어젠다에서 진전이 도출되도록 APEC의 지속적 기여의지를 재확인하고,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지역 또는 자유무역협정이 APEC이 보고르에서 세운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회원국간 반부패 협력방안 그리고 아태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고유가대책 등이 폭 넓게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APEC의 기업인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에서 건의한 APEC 차원의 자유무역협정 체결타당성 연구문제와 보다 종합적인 무역원활화 문제에 대한 정상은 물론 각료, 고위관리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역내 기업인의 야심 있는 제안과 다양한 경제발전수준에서 차이가 큰 APEC 회원국들의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무역확대를 위한 산티아고 구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한편 역내에서 체결되는 지역·자유무역협정들이 복잡하게 얽힘으로 해서 생기는 소위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지역·자유무역협정들이 세계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자유무역협정 모범관행도 채택하였다.

무엇보다도 2004년 APEC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인 반부패행동계획은 우리나라가 2003년 태국 APEC회의 때부터 미국, 칠레와

함께 처음으로 제기하여, 1년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금번 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5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APEC 반부패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APEC 반부패 대책반”이 설치되어 실제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인간안보 의제하에서는 안전한 교역 및 자연인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9개의 세부 대테러 대책방안 및 AIDS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의 확산 방지를 위한 회원국간 협력방안 등 2003년 방콕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APEC 회원국들의 안보공약에 대한 실제 이행문제에 관해 APEC 회원국간의 합의가 도출되어 ‘인간안보’라고 하는 회원국간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정상(頂上) 차원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PEC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관리하는 경제통상외교 강화 차원뿐만 아니라, APEC에서 우리나라가 1989년 창설 초기부터 취해온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주변 4대국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에 6자회담의 조기 개최 추진 등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입장을 조율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차원에서 2004년도

APEC 정상회의를 충분히 활용하였다.

2005년 APEC 의장국 수임 대비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에서 2005년도 정상회의가 2005년 11월 18~19일간 부산에서 개최될 것임을 회원국들에 처음으로 공식발표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라는 2005년도 APEC의 주제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조만간 의장국 칠레와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2005년 의장국으로서 APEC의 운영 전체를 주관하게 된다. 21개 회원국간 입장조율 및 산하 30여 개의 APEC 회의체를 총괄하는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의 의장직을 맡게 된 필자로서는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다른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성공적인 APEC 행사 개최를 향한 국민들의 성원에 부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외교력과 그간 APEC 고위관리회의의 참석을 통하여 다져 놓은 각국 SOM 대표와의 우의, 그리고 이미 2005년도 행사준비에 열의와 정성을 다하고 있는 정부 각 부처 및 부산시, 그리고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